

베이비 붐 세대의 제특성 및 복지욕구

Characteristics and Welfare Needs of the Korean Baby Boom Generation



정경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약 712만명으로 총 인구의 14.6%를 차지하고 있는 베이비 붐 세대가 2010년에 본격적인 은퇴를 시작함에 따라 베이비 붐 세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1955년부터 1963년 기간에 태어난 베이비 붐 세대들은 그 규모가 클 뿐만 아니라 그들이 경험해 온 우리사회의 압축적인 사회·경제·문화적 변화로 인하여 이전 세대와는 다른 특성을 갖고 있다. 따라서 이들의 고령화를 대비한 선제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특성과 복지욕구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10년 7월 5일부터 2010년 8월 15일에 걸쳐 실시한 『중년층(46~59세)의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를 기초로 하여 베이비 붐 세대의 특성과 복지욕구를 살펴보고자 한다¹⁾.

1. 일반 특성

베이비 붐 세대는 그 동안 진행되어온 도시화의 결과 80% 이상이 도시에 거주하며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다. 또한 교육수준이 높아 약 70%가 고등학교 이상 학력을 갖고 있다(초등학교 이하 10.5%, 중학교 20.7%, 고등학교 44.0%, 전문대학교 이상 24.8%). 이는 노인의 65.7%가 도시지역에 거주하며 28.9%만이 중학교 이상의 학력을 갖고 있는 것에 비하여 매우 큰 변화

이다. 이러한 제특성의 변화는 이들이 노년기에 진입할 때도 변화하지 않을 것으로 교육수준의 상승과 도시화에 따라 욕구의 다양화와 높아진 기대수준을 만족시킬 수 있는 서비스 개발이 요구된다 하겠다.

한편 베이비 붐 세대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삶의 만족도를 살펴보면, 전체평균은 34.53점으로 최소 12점에서 최대 60점을 고려해 볼 때 보통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이것은 50대 후반 연령층의 평균 34.38점이나 65세 이상 노인의 평

1) 본고는 『중년층(46~59세)의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자료 중 베이비 붐 세대만을 분석대상으로 하여 분석한 주요 결과를 제시하고 있음. 『중년층(46~59세)의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는 그 전 연령층과의 비교를 통하여 베이비 붐 세대가 갖고 있는 공통점과 상이점을 비교할 수 있도록, 베이비 붐 세대 뿐만 아니라 50대 후반을 조사대상에 포함하였음. 본고에서는 조사 내용 중 다음 3개의 글에서 다루어질 경제활동 및 사회참여, 건강상태 및 건강행태, 경제상태 및 소비실태에 관한 내용을 제외한 주요 조사결과를 제시하고자 함.

균 32.25점²⁾과 비교해 보았을 때 다소 높은 점수로 베이비 붐 세대의 삶의 만족도가 노인보다 높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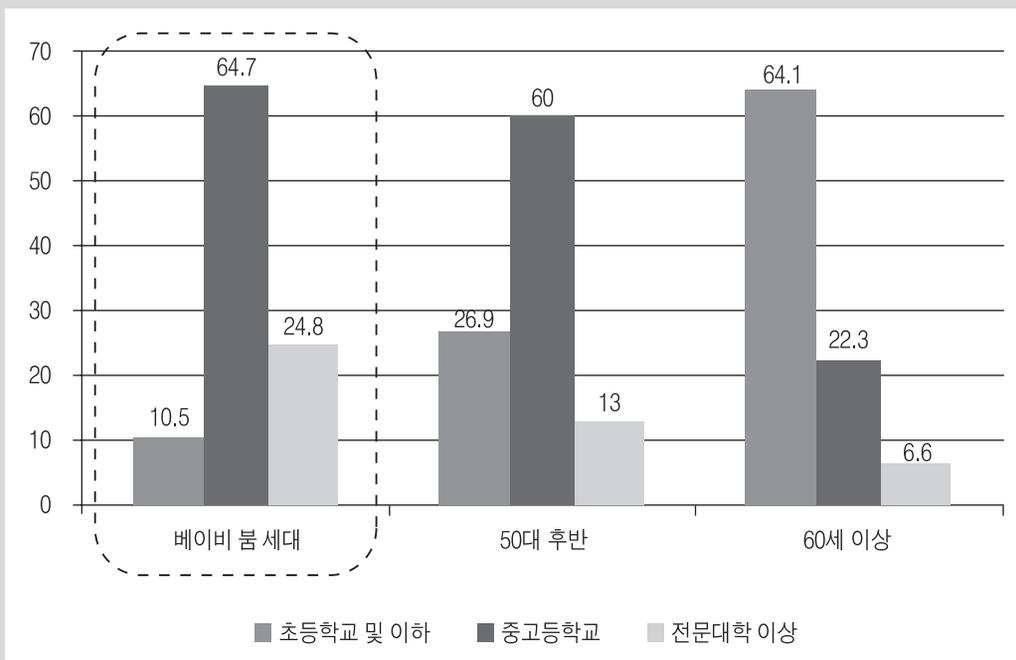
2. 가족·사회관계

가족관계에 있어 핵가족의 보편화, 방위가족과 생식가족의 규모에 있어서의 큰 차이, ‘콩깍지 가족’으로의 경향성이 발견되었다. 총 자녀 수는 1.9명이나 자신의 형제·자매 수는 5.1명이고, 약 61.2%는 부모가 생존해있고, 11.8%가

손자녀를 두고 있다. 한편 변화의 외증에 있는 가족관계 변화도 있는데, 바로 양계제로의 변화이다. 양계제로의 변화가 발견되기는 하지만, 아직 남자 부모 중심의 세대관계와 부양의 제공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예상되었던 것처럼 부모에게 도움을 제공함과 동시에 자녀에게도 경제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는 베이비 붐 세대가 상당수 있다. 베이비 붐 세대의 대다수가 부모에게 도구적 도움을 제공하고 있으며, 비정기적인 현금지원이 주된 경제적 지원을 하고 있다. 또한 약 절반 정도가 성인자녀에게 경제적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부모

그림 1. 베이비 붐 세대의 교육수준



주: 60세 이상은 '계명대학교·보건복지가족부 (2009). 2008년도 전국노인실태조사' 결과임.

2) 정경희 외(2009). 2009년도 전국 노인학대 실태조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에 대한 경제적 지원보다 성인자녀에 대한 경제적 부양으로부터 부담을 더 느끼고 있다.

또한 핵가족화 및 가족주기의 변화에 따라 배우자와 생활하는 기간이 길어졌을 뿐만 아니라 개인의 삶에 있어 배우자를 중요하게 언급하고 있어 부부관계 중심으로의 변화가 발생했음을 볼 수 있다.

3. 가치관 및 정책관련 인지도 · 욕구

베이비 붐 세대가 갖고 있는 가치관과 정책관련 인지도 및 욕구와 관련하여 나타난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노후부양과 관련한 가치관에 있어 샌드위치적 특성을 보이고 있다. 노부모에 대한 부양책임과 관련하여 ‘자녀

나 가족에게 부양책임이 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아 아직까지 전통적인 유교가치관이 유지되고 있지만 본인의 노후 생활비 마련 방법에 대해서는 본인과 배우자, 연금 등 사회보험(28.7%)으로 나타나 노부모 부양책임에 대한 인식은 변화하고 있다. 또한 노후 함께 거주하기를 희망하는 사람에 대한 형태에서도 ‘부부끼리, 혹은 혼자 살고 싶다’는 응답률이 93.2%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어 베이비 붐 세대의 자녀에게 의존성은 매우 낮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베이비 붐 세대의 본인의 노후에 희망하는 수발 형태는 외부 서비스 이용이 67.2%로 압도적이며 자녀라는 응답은 3.6%에 불과하였다. 모든 측면에서 부모는 부양하지만 자녀로부터는 나의 노후보장을 기대하지 않는 ‘일방적인 부양제공’의 가치관을 갖고 있다.

표 1. 베이비 붐 세대의 가족상황

(단위: %, 명)

무 자녀율	총 자녀수	동거여부		결혼여부		자녀 동거율	손자녀가 있는 비율	형제·자매수		부모생존율	
		동거 자녀수	비동거 자녀수	미혼 자녀수	기혼 자녀수			본인	배우자	본인	배우자
5.1	1.9	1.4	0.5	1.7	0.2	82.7	11.8	5.1	5.0	82.1	8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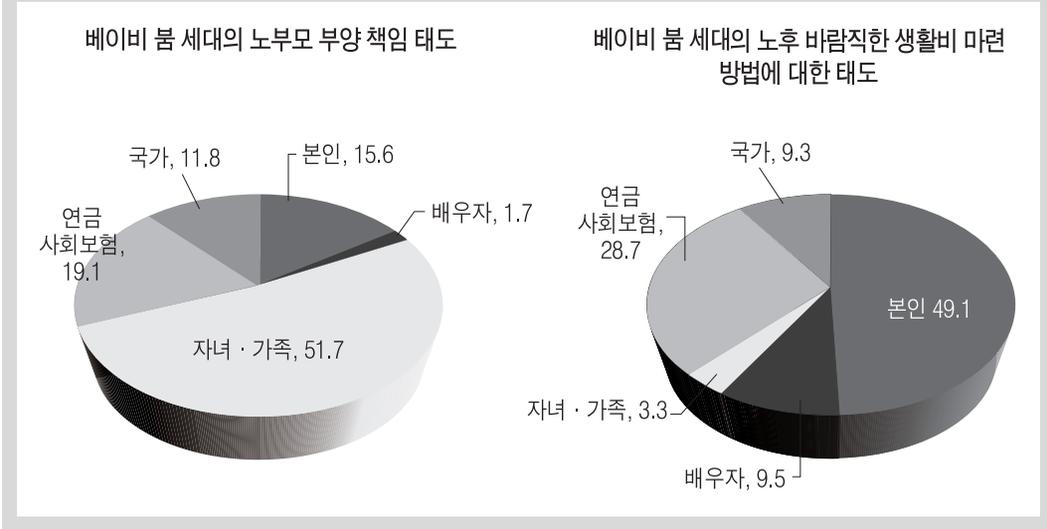
표 2. 베이비 붐 세대가 노후생활에 중요할 것으로 생각하는 관계

(단위: %, 명)

노후생활에 중요할 것으로 생각하는 관계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구	기타	계 (명)
		78.4	10.4	3.7	7.2	0.3
노후에 희망하는 동거자	이들	딸	형편되는 자녀	부부/독거	기타	계 (명)
	2.9	0.7	2.5	93.2	0.6	100.0 (3,027)

그림 2. 베이비 붐 세대의 노부모 부양 책임 태도 및 자신의 노후생활비 마련에 대한 태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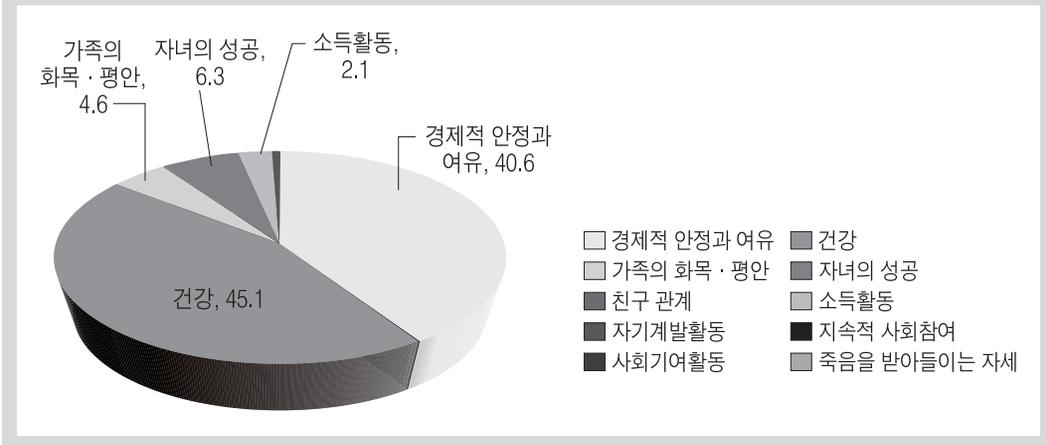
둘째, 아직도 성인자녀에 대한 부양을 당연히 하고 있어, 결혼할 때까지(41.5%)가 가장 많았고, 학업을 마칠 때까지(29.6%), 직장이 생길 때까지(23.9%)의 순으로 나타나 자녀가 성년이 된

이후에도 결혼해서 분가하기 전에는 부모의 책임이라는 인식이 폭넓게 받아들여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현세대 노인과 마찬가지로 베이비 붐

그림 3. 베이비 붐 세대가 생각하는 성공적 노후

(단위: %)



세대의 노후생활과 관련된 주관심사는 건강과 소득보장이다. 노후에 가장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는 건강 및 기능악화(54.7%)와 경제적 어려움(31.8%)을 언급하고 있으며, 건강(45.1%), 경제적인 안정과 여유(40.6%)를 성공적인 노후를 위해 중요한 항목으로 지적하였다. 또한 노후정책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노후 건강보호와 장기요양보장이 43.5%로 가장 높으며, 소득보장 32.9%가 그 다음이었다.

넷째, 주택연금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노후 관련 정책에 대한 높은 인지도를 갖고 있으나 제도의 충분성에 대해서는 확신을 갖고 있지 못하다. 약 절반이 건강보험이 노후 건강보장을

위해 불충분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51.5%는 현재 공적연금에 가입되어있으나, 불입하지 못하는 경우가 12.3%, 미가입률이 35.8%이다.

마지막으로 죽음 및 상제례와 관련해서는 화장의 보편화, 존엄사(72.5%)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반면 제사, 장기기증과 죽음준비교육에 대해서는 긍정과 부정이 혼재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4. 정책적 함의

조사결과 나타난 베이비 붐 세대의 특성과 복

지욕구에 기초해 기초해볼 때 다음과 같은 정책적 대응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공적 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미가입자의 가입확대와 미불입자에 대한 지원 정책 등의 정책 개선이 요구된다. 둘째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가 필요하다. 보장성 강화를 위한 보험금 인상 방안에 대해 본격적인 국민적 논의의 공론화 및 구체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베이비 붐 세대는 미래 노후정책의 우선순위에서 건강보호와 장기요양보장을 제1순위로 두고 있으며 그 비율은 43.5%에 달하고 있다. 즉, 건강보호와 장기요양의

그림 4. 베이비 붐 세대의 공적연금 가입상태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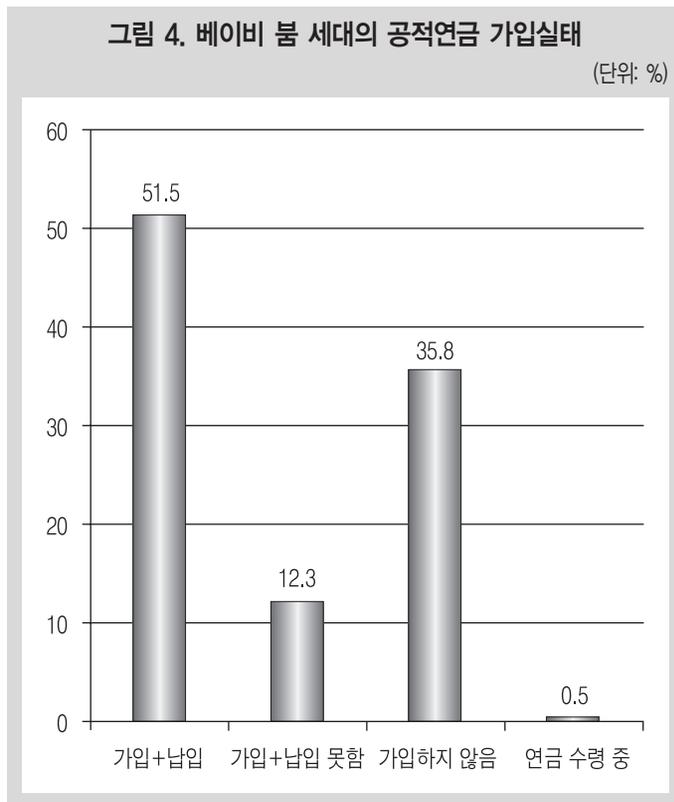


표 3. 베이비 붐 세대의 장례 및 죽음에 대한 태도

(단위: %, 명)

제사의 필요성		바람직한 장례 방법	
매우 필요하다	5.7	매장	14.4
필요하다	36.1	화장 후 봉안	34.5
보통이다	16.0	화장 후 자연장	25.3
필요하지 않다	35.0	화장 후 산골	25.7
전혀 필요하지 않다	7.1	기타	0.1
존엄사에 대한 태도		장기기증 의향	
매우 바람직하다	13.9	매우 그렇다	4.9
바람직하다	58.6	그렇다	36.4
보통이다	14.7	보통이다	19.6
바람직하지 않다	10.9	그렇지 않다	31.3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	1.9	전혀 그렇지 않다	7.9
죽음준비에 관한 교육에 대한 의향			
매우 그렇다	5.1		
그렇다	31.8		
보통이다	12.5		
그렇지 않다	39.3		
전혀 그렇지 않다	11.2		

보장성 강화에 대한 욕구가 높은 베이비 붐 세대를 고려할 때 공공제도를 통한 보장성 강화와 재정안정화에 대한 논의가 구체화되어야 할 필요성이 높다. 셋째, 교육수준의 향상, 청장년기에 누린 다양한 활동참여 경험, 취미활동이나 자기개발을 하는 노후생활에 대해 선호하는 베이비 붐 세대를 위한 다양한 여가활동 기회 제공 및 프로그램 내용의 고급화가 필요하다. 또한 주거형태와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생활서비

스의 개발과 서비스 시장 활성화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화장 증가 추세를 감안하여 중앙정부 및 지자체는 이에 대한 대비 및 인식의 확산과 선호도가 증가하고 있는 자연장 조성 등과 같은 장례 서비스의 다양화가 요구된다. 더불어 긍정적인 태도가 형성된 존엄사에 관한 구체적인 법적 기반 마련과 장기기증의사가 구현될 수 있는 체계적인 절차 마련 등 죽음의 질 제고를 위한 사회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보건복지